

КСІ

КСІ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논문집 제2권

# 복음과 상담

주제 : 기독교상담과 목회현장

K C I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www.evangelcounseling.com](http://www.evangelcounseling.com)

## 복음과 상담 제2권 2004

편집위원: 전요섭·황규명·안경승·강경마·오윤선

펴낸 곳: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www.evangelcounseling.com](http://www.evangelcounseling.com)

찍은 곳: 도서출판 복음문고

찍은 날: 2004년 5월 22일

찍은 이: 최득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78

등록: 1988년 9월 2일 가제 1-806호

전화: 02) 738-0209, 720-2358

Fax: 02) 723-7909, 723-7908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5,000원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논문집 제 2권

# 복음과 상담

K C I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www.evangelcounseling.com](http://www.evangelcounseling.com)

-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

제2권 2004 봄

편집위원

·전요섭·황규명·안경승·강경미·오윤선·

- 권 두 언 · 전요섭/ 8
  
- 기초 논문 / 기독교상담에서 평신도 상담자 양성 및 활용 · 전요섭/ 10
  
- 주제 발표 논문  
교회성장에서의 인간관계문제와 기독교상담 · 강경미/ 40  
고백과 기독교상담 현장 · 김영근/ 77
  
- 연구 논문  
강병문/ 기독교상담과 목회현장 · 107  
김정일/ 청소년상담 및 지도를 위한 기독교적인 접근방법 ·  
137  
김태수/ 섬김의 리더십과 목회상담자의 역할 · 156  
심수명/ 기독교상담의 목회현장 적용점 · 182  
안경승/ 평신도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의 성격 · 212  
오윤선/ 청소년 성문제 현황 분석을 통한 교회안에서의  
성상담연구 · 239  
최은경/ 이마고 부부치료의 한국교회 적용 연구 · 261  
전요섭, 류현미/ 기독교대학생과 비기독교대학생의 강박관념  
분석 · 278

□ 부 록

1.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신앙고백서 ..... 311
2.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회칙 ..... 312
3. 학회지“복음과 상담”논문발표 및 게재, 편집규정 ..... 316

□ 권두언

## “복음과 상담 제2집을 출간하며....”

전 요 섭(학회장 · 성결대학교 · 교수)

학회지는 전공교수 및 회원들의 학문적 토론이 전개되는 장으로서 그동안 이런 우리 학회에는 학술지가 없어서 학문 연구와 학회의 위상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2000년에 학회가 생겼지만 이제야 2권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학회가 궤도에 올라 정기적인 학술논문 발표회를 갖게 되고, 논문집을 정기적으로 출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협조해 주시고 기고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에 처음으로 분과학회가 독립된 것은 1997년 가을학회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회장이셨던 성기호박사(성결대학교 총장)께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각 신학분과 별로 학회를 독립시키는 옳다고 하여 총회에서 가결되어 분과학회를 조직하고 조각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구약신학회, 신약신학회, 조직신학회, 역사신학회, 실천신학회, 선교학회, 기독교교육학회가 분과학회로서 구성되었을 뿐, 기독교상담학회는 존재 자체가 없이 실천신학회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가을학회 때 본인이 제출한 청원서에 의하여 본 학회에서 기독교상담학회가 실천신학회로부터 분리, 독립을 가결하고 출생과 같은 기쁨과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상담분과학회가 독립될 당시 초대 회장으로 김준수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선임하였으나 이렇다 할 가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2003년 11월에 처음으로 기독교(목회)상담 전문가 자

격을 수립하고 교육과 논문발표회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학회지 “복음과 상담”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학회의 기틀을 다져놓으신 김준수 교수의 노고와 실적은 우리 학회가 존재하는 한 기억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회의 많은 활동 가운데서 논문집 출간은 우리의 복음주의적 성격을 가지적으로, 대내외에 표출시키는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이 논문집은 학회에서 발표되는 기초논문과 주제논문 2편이 수록되고, 감독상담자를 중심으로 발표되는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주제 중심적인 논문집이 되도록 게재논문 조차도 주제에 맞도록 작성하시도록 요구하여 논문의 특성을 살리고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인은 2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본 학술지 “복음과 상담”을 학술학술단체연합회에 등재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도 등재시키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지만 점차 발전하는 학회와 학술지가 될 줄로 믿고, 회원들의 참여와 기도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본 학술지가 산하 28개 회원대학교의 교수와 학생, 5개 기관회원들의 학술발표의 장으로써 이 논문집을 통해서 활발한 학술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 학술지는 누구의 학술지가 아니라 우리의 학술지로서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우리의 복음주의적 성격을 과시, 드러내며,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 학술지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옥고를 제출해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출판에 수고를 많이 해주신 도서출판 복음문고 사장 최득원장로님과 편집에 힘써주신 총무 안경승 교수님과 간사 최은경 자매에게 특별한 감사들 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 5월

## 기독교상담에서 평신도상담자 양성 및 활용

전요섭(Ph.D. 성결대학교 · 교수)

### I. 여는 글

근래 목회상담(pastoral counseling)과 기독교상담(Christian counseling)이라는 용어가 분명한 개념 정의 없이 혼용되고 있는데, 대개는 목회상담을 목회자에 의한 상담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독교상담은 폭넓은 개념으로 상담의 장(field)을 통상 교회로 하고, 평신도상담자에 의한 상담으로 그 범위를 넓혀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문제 해결방법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접근 방법으로 상담하는 것이라는 견해에는 커다란 이견이 없는 듯 하다. 그리고 전자를 세분화된 전문적 개념으로, 후자를 전문적이지 않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편적이며 광범위한 것으로 인식하여 기독교상담에 목회상담의 개념이 내포되는 것으로 생각하려는 추세이다.

상담이 목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목회자의 점유물이 아니라, 신자됨을 나타내는 성경의 실천이라는 의미가 있다. 오늘날 많은 평신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전문적이거나 비전문적이거나, 또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이거나 어떤 형태로든 다른 신자들을 돕는 상담사역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에 출석하는 구성원의 99%는 평신도로서 이들이 상담 대상자일 수밖에 없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와 달리,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목회자 한 사람이 100명의 신자를 대상으로 목회를 할 경우에 평신도 한 사람이 적어도 두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 목회자는 최소한 200-300 가지 이상의 문제와 관련을 맺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목회자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직 상담만 해도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 틀림없다. 평신도들은 신앙생활과 개인적 삶의 과정 속에서 문제를 겪게 될 때 목회자를 포함하여 전문상담자를 찾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sup>1)</sup>

목회자들은 대부분 신학대학원과정에서 2-3개의 목회상담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데, 상담 기술을 숙지하고 있을지라도 목회자가 상담전문가가 아닌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평신도들이 목회자에게만 상담을 요청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사람이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 있으며, 상을 당했던 유족이 다른 유족들을 돕는데 어떤 상담자보다도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신도상담자라는 용어와 개념은 속히 교회에 정착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있다. Siang Yang Tan은 평신도상담자 양성을 지지하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 표현하기를 “성격이라는 지뢰밭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으로 비유한 바 있다.<sup>2)</sup> 과연 평신도상담자의 활동이 교회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나 상담 할 수 있다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상담자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은 전문상담을 추구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견해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평신도의 상담 사역은 그들이 응당히 실천해야 할 성경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써 극히 자연스러운 신앙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마다 평신도상담자를 발굴, 양성하는 것은 당면 과제이며, 시급한 문제

---

1) Gary R. Collins, *How to be a People Helper* (Santa Ana, CA: Vision House, 1976),

2) Siang-Yang Tan, *Lay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91), 13.

일 뿐 아니라, 현실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Kevin Springer는 *Pastoral Renewal* 「목회 갱신」이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성숙한 평신도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즉, 많은 평신도들이 소정의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충분히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개발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명한 목회자들은 평신도들과 더불어 이 사역을 나누어 감당하도록 신자들을 이끌 것이다.

본고에서는 평신도의 상담사역은 실제로 교회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교회가 평신도상담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이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평신도상담자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가? 등의 문제에 답하면서 이에 대한 교회의 준비를 촉구하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 II. 펴는 글

### 1. 평신도상담자의 개념

#### 1) 용어

‘평신도상담자’(lay counselor)에서 ‘평신도’라는 말은 신학 용어이므로 일반상담학에서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상담학에 이러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유사 개념으로서 ‘비전문상담자(non-professional counselor)’ 또는 ‘동료 상담자(peer counselor)’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sup>3)</sup> 즉 상담을 전문적으로 학습한 바 없는 비전문적 상태이지만 개인의 인격적 특성 등으

3) Joseph Moore는 미국에서 이른바 ‘또래 상담(peer counseling)’의 개척자는 Barbara Varenhorst라고 주장했다. Joseph Moore, *Helping Skills for Non-professional Counselor*, 전요섭 역, 「비전문상담자를 위한 상담학」(서울: 은혜출판사, 1995), 29.

로 인해서 동료들로부터 많은 상담을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실상 ‘비전문’ ‘동료’ 이 두 가지 용어를 합쳐 놓은 개념이 기독교상담에서는 바로 ‘평신도상담자’라고 볼 수 있다.<sup>4)</sup> 대개의 평신도들은 교회 현장에서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기 보다는 동료 신자에게 더 많이 요청하고, 요청받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인데 이것을 평신도상담이라고 하며, 이 상담자를 평신도상담자라고 일컫는다.

Gerald Egan은 이를 ‘비공식적 상담자(informal helper)’라고 명명하면서 이들은 공식적이며 전문(직업)상담자는 아닐지라도 각자 자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들이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기나 어려운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가장 가까운데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2선의 전문가’이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 주기를 요청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sup>5)</sup> 그런 의미라면 사실상 ‘제2선의 전문가’가 아니라 ‘제1선의 상담자’라고 표현함이 옳을 수도 있다. 대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담을 해 보고 해결이 안 될 때, 전문적 상담자를 찾는 경우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Gary R. Collins는 counselor(상담자)라는 용어를 다소 전문적인 의미로 인식하고 그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helper(돕는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평신도 돕는이(people helper)’라고 기술한 바 있으며,<sup>6)</sup> 다른 표현으로 ‘준전문적(paraprofession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sup>7)</sup> ‘상담’이라는 용어 앞에 붙는 서술적 용어 ‘동료’ ‘비공식적’ ‘비전문’ ‘제2선의’ ‘준전문적’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 ‘평신도상담자’일 수 있다. 이들은 당연히 ‘동료’ 상담자가 될 수 있으나, 모두 ‘비전문적’이거나 ‘비공식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들을 모두 비전문적이라고 인식해

4) ‘평신도상담자(lay counselor)’라는 용어는 Fuller신학교의 상담학 교수 Siang-Yang Tan이 그의 저서 *Lay Counseling*에서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5) Gerald Egan, *The Skilled Helper*, 제석봉, 유계식, 박은영 공역, 「유능한 상담자」(서울: 학지사, 1997), 20.

6) Gary R. Collins, *How to Be a People Helper*, 정동섭 역, 「훌륭한 상담자」(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37.

7) Collins, *How to be a People Helper*, 58.

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 현장에서 비공식적일 수도 있고, 공식적일 수도 있고, 역시 비전문적일 수도 있지만, 전문적일 수도 있으며, 제2선에서 상담하는 자도 있고, 제1선에서 상담하는 자들도 있다. 다만 평신도로서 상담 할 뿐이므로 어느 하나의 단어가 이들의 성격을 충분히 묘사하지는 못한다.

## 2) 평신도상담의 성경적 근거

(1) 평신도에 의한 목회 돌봄: 모든 기독교 사역은 성경적, 신학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평신도상담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몇몇 성경구절에 기초되어 있다. 먼저는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평신도들이 다른 평신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신분석학자 Frank Minirth는 신약성경에 상담사역과 관련된 동사가 최소한 5가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모든 것이 사용된 구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예로 들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parakalew)하노니, 규모없는 자들을 권계(nouqetew)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paramuqevomai)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ajntevcoma),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makroqumew)!”고 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따로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독선일 수 있거나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셨으며, 서로 돌보아 주고, 서로의 짐을 저주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우기 위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평신도상담 사역의 기초가 수립되기 때문이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함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5-16).” 이 구절들은 신자들이 서로 목회적 돌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다.<sup>8)</sup>

이런 구절들에서 평신도상담자의 존재와 역할의 성경적 기초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분다 없었으며, 이 일을 위한 부르심은 서로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sup>9)</sup>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평신도가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다른 평신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역을 담당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같은 사람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더 성숙된 평신도로부터 피상담자로서 돌봄을 받는 자, 용기를 얻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sup>10)</sup> 상담 사역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상담의 은사와 상담의 의무: 모든 신자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상담해 줄 책임이 있지만 상담은 교회를 세워주고 각 성도를 힘 있게 세우기 위해 주어진 은사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상담을 은사로 보는 견해는 Paul Morris의 저서 *Love Therapy*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는 “성경만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모든 신자들이 유능한 상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다. 상담은 영적인 은사 중의 하나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목사가 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모든 신자들이 상담자가 되도록 은사를 주시지는 않았다. .... 하지만 상담의 은사는 매우 적은 수의 신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상담의 은사는 광범위하여 성경과 심리학 분야의 훈련을 받으면 이 은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능률은 크게 향상된다.”<sup>11)</sup>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담이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8) 영국에서 pastoral care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의미와는 다르다. 즉 목회자에 의한 상담이나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 교사 등이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영적 건강 및 복리, 영혼을 돌보는 개념이다. 이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 혼자 목회 돌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9) Paul Stevens, *Liberating the Laity* (Downer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5), 29.

10) Martin & Deidre Bobgan, *How to from Scripture* (Chicago: Moody, 1985),

11) Paul Morris, *Love Therapy* (Wheaton: Tyndale House, 1974), 16-17.

특정 은사라고 할지라도, 상담은 전도의 은사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은사이며 동시에 의무에 해당하는 사역이다. 즉 모든 신자들이 복음을 받아 구원얻은 감격과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복음의 재생산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같다. 물론 어떤 신자는 특별히 전도에 남다른 재능(은사)과 담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도가 어느 특정인의 점유물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과 같이 상담도 마찬가지로 이해해야 한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권면하는 일에 남다른 은사(재능)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모든 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를 받은 자이다.<sup>12)</sup> 평신도들에게 이 의무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교회와 목회자는 이들을 각성시키고 이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도전을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을 뿐이다.

## 2. 평신도상담자 양성

일반상담이건 기독교상담이건 상담은 한 사람의 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수술에 준하여 비유되어 왔으며, 원칙적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일로써 아무나 상담 할 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본 연구자가 결코 가볍게 보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물론 평신도상담자는 전문상담자에 비하여 이론 연구 및 내담자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법이나 탐색 등 어떤 부분은 다소 부족한 면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교회 현실과 상황 자체가 평신도상담자를 양성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 1) 전문상담자에 대한 부정론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정부가 주도하여 비전문상담자를 훈련시

12) Lawrence Crabb,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전요섭 역, 「성경적 상담학 개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5), 14.

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의회가 이를 위해 기금을 배당하기 시작했다. 당시 전문상담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주장으로써 비전문상담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전문상담자에 대한 부정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전문상담자들은 별로 낮게 하지도 못하면서 돈만 받는 불량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연구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심리학자 Hans J. Eysenck는 심리치료의 효과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강력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sup>13)</sup> 뿐만 아니라 A. E. Bergin & S. L. Garfield 등도 “모든 전문상담사의 3분의 2 정도가 비효과적이거나 해로운 상담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sup>14)</sup> 또한 Joseph Matarazzo는 25년간 정신요법을 연구하고 치료해 왔던 사람으로서 전문심리치료사들이 비전문가보다 낫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그의 연구 결론을 밝힌 바 있다.<sup>15)</sup> 이같은 연구결과는 Journal “Research psychiatrist”에 E. Fuller Torrey도 유사한 결론을 발표했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의학자를 포함하여 전문상담자를 찾아가야 하는 상태는 대략 5% 정도로서 이들은 기질성 뇌질환을 앓은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서 약 75%는 삶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20%는 최종 판단을 위해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분석했다.<sup>16)</sup> Torrey는 정신의학자를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75%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진술했다.<sup>17)</sup> 미국 Illinois대학교에서 전문상담자와 비전

13) Hans J. Eysenck, *The Effects of Psychotherapy* (New York: International Science Press, 1966).

14) A. E. Bergin & S. L. Garfield,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New York: Wiley, 1971), 217-270.

15) Joseph Matarazzo, “Comment on Licensing,” *APA Monitor 10* (September-October 1979): 36.

16) E. Fuller Torrey, *The Death of Psychiatry* (Radnor, PA: Chilton, 1974), 195.

17) Torrey, part 2. 그밖에도 정신의학자 Jerome Frank는 “만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병실에서 추방된다면 정신병원에는 극소수의 환자만 남게 될 것”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Frank, “Mental Health in a Fragmented Society:

문상담자를 비교하는 42편의 연구 논문을 검토한 결과 “비전문상담자는 전문상담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거나 혹은 더욱 나은 임상적인 결과를 성취한다.”<sup>18)</sup>고 분석한 바도 있다. 사실, 상담 현장에서 전문상담자들은 현저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전문상담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지만, 1960-70년대의 분위기는 전문상담에 대한 강한 부정론적 입장을 견지하는 사회적 상황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만 종합해 본다면 마치 전문상담 부정론을 제기하는 것처럼 오해되기도 한다.

현대 과학으로서의 심리치료는 Sigmund Freud가 의학적 상황에서 ‘이상(abnormal)’을 ‘정상(normal)’으로 만드는 전문적 분야를 태동시켰지만, Carl R. Rogers가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상담 개념을 일반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성행하던 정신의학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치료’라는 말보다는 ‘상담’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활동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것도 비의료인에 의한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상담 및 심리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을 높이 쌓고 있다.

## 2) 비전문상담자를 요구하는 상황

작금의 현실은 신자들 가운데 증가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고통을 겪는 수요를 전문가들이 충당 및 충족시키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비전문상담자 또는 평신도상담자 양성의 필연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현대인들은 실제로 모든 상황이 점점

---

The Shattered Crystal Ball,”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9, no. 3 (July 1979): 406. 미국심리협회(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회장이었던 George Albee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정서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정신질환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George Albee, Letter to editor, *APA Monitor* 8, no. 2 (February 1977): 2.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관리들과 관련자들도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추정하는 수천만명의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전문적 처방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Franklin Chu and Sharland Trotter, *The Madness Establishment* (New York: Grossman, 1974), 206.

18) Garth Wood, *The Myth of Neurosis* (New York: Harper & Row, 1986), 266.

더 악화되어 가는 삶의 정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 정서적 문제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질 것이 틀림없다.<sup>20)</sup> 이러한 상황에서 평신도 각자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 줄만한 전문상담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목회자를 포함하여 전문상담자가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인 내담자들이 목회자나 상담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 개념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sup>21)</sup> 전문성만을 강조하다가 결국 상담적 지원 자체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수많은 신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개념을 이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 3. 평신도상담자의 한계

현재 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상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평신도들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담을 허가받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회 내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평신도들이 비공식적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처럼 평신도에 의한 상담에 문제와 한계 또는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1) 역할 모호성

평신도상담자로서 비전문상담자는 그 역할의 한계와 경계의 모호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불명확성 때문에 비전문상담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과 두려움을 가질 수

19) Tan, 66.

20) Harvard대학교 의과대학 정신분석학자인 Armand Nicholi는 예언하기를 의미있는 돌봄의 관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특별히 가족 내에서 급속도로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발생이 증가하여 병원의 병상을 95%까지 정신질환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자제력의 부족이 정신적, 정서적 장애의 주된 특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Nicholi, Jr., "The Fractured Family: Following it into the Future," *Christian Today* (May 25, 1979): 10-15.

21) Collins, *How to be a People Helper*, 58.

도 있다. 어떤 경우는 내담자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어 간혹 상담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거나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또는 반대로, 이들은 의욕만 앞서서 환상에 빠질 수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시도하려다가 혼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sup>22)</sup>

일반적으로 평신도상담자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는 아홉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상담하기보다는 방문함, 신중하기 보다는 허둥댐, 동정적이기보다는 예의가 없음, 편견을 갖지 않기 보다는 판단함, 해석적이기 보다는 지시적임, 객관적으로 있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뒤엎힘, 현실적이기 보다는 짜증을 냄, 진정으로 대하기보다는 인위적임, 공감하기 보다는 방어적인 면이 나타난다고 분석할 수 있다.<sup>23)</sup>

#### 2) 교육, 훈련, 경험 부족

평신도상담자는 교육, 훈련 및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실수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측된 위험성일 수 있다. 상담자 교육은 잘못된 상담을 막아주는 기본적인 방호책이 될 수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실패는 매우 흔한 문제일 수 있다.

#### 3) 책임의식 결여

평신도상담자가 모두 비전문적이라도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비전문상담자일 가능성이 많은데 비전문가는 전문가에 비하여 책임의식이 약한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따라서 평신도 비전문상담자들에게도 책임성있는 상담을 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비전문적이라는 것 때문에 다소 어려운 상담 상황에서는 자신의 상담을 비전문가에 걸맞게 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 4) 비밀보장성

평신도 비전문상담자의 상담에서 나타나는 위험성 가운데 하나

---

22) Korchin, 530-33.

23) Tan, 214.

는 내담자의 비밀스러운 상담 내용을 나누는데 있어서 비밀보장성이다. 담임목사는 상담센터에서 활동하는 상담자들로부터 신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생각을 해서 안 될 것이며, 상담자는 상담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상담자의 전문성은 비밀보장성에서도 나타나는데 비전문적 상담자는 전문의식의 결여로 인해서 폭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평신도상담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한계점 그리고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 4. 평신도상담자의 확보 및 양성교육

##### 1) 공식적 상담자와 비공식적 상담의 분류

교회 내 상담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이것을 운용해 나가고, 이 사역에 투입될 자원을 양성해 내는 공식적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장소에서의 상담 개념에서 벗어나, 평신도 자신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상담 사역을 감당하는 비공식적 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자원 모두를 양성해 내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상담센터를 들만한 중대형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후자는 어느 교회에서나 활용 가능한 형태이다. 그렇다면 이후로 평신도상담자의 개념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공식적 활동을 하는 평신도상담자와 비공식적 상담자로 분류해야 할 것이며, 이들은 모두 자원 봉사자로 충원해야 할 것이다.

##### 2) 자격 요건

평신도상담자를 선발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공식적인 상담사역자의 선발에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훌륭한 자원을 선발한다는 의도로 지원자의 조건을 제시, 제한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를테면 학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효용 가치나 인정도가 높을 수 있지만 이를 처음부터 제한하여 대상자의 폭을 좁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는 집사나 장로의 자격을 학력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으며 권장할만 하지 않다. 측정이 가능하다면 영적 성숙도, 심리적 안정성, 연령,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선발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상담이나 일반상담이나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목표는 내담자의 효과적인 변화에 있다.<sup>24)</sup> 그리고 인간의 변화가 단시간 내에 비전문가에 의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둘 때, 평신도상담자의 양성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Collins는 신앙 간증과 고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피력하면서 추천서를 2-3통을 받도록 하고, 영적 성숙도, 심리적 안정성, 동기부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면접을 해야 하며,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훌륭한 자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sup>25)</sup> 만일 교회에 평신도상담자가 많을 경우에 공식적 상담자를 선발할 때는 기준의 유연성을 가지고, 협력과 편성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sup>26)</sup>

선발은 양성교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비공식적 상담자를 양성해 내는 차원에서는 지원자를 모두 수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일반 지원자 가운데 교육을 마칠 즈음에 나이, 배경, 문화, 관심분야, 교육 정도, 직업 등을 고려하여 공식적 상담사역에 투입될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좋다. 연령별 편성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것이 좋으며, 신앙적 연조는 고려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담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상담자의 교육 정도가 높아야만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 고학력의 내담자는 상대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상담자를 꺼릴 수 있는

24) James D. Hamilton, *The Ministry of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72), 19.

25) Gary R. Collins, "Lay Counseling within the Local Church," *Leadership 1* (1980): 81.

26) Martin & Deidre Bobgan, *How to from Scripture* (Chicago: Moody, 1985), 상담 협력의 고려사항.

일이며, 저학력의 내담자 가운데는 공부를 많이 한 상담자에 대해서 주눅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에서는 여성이 여성을, 남성이 남성을 상담하도록 하며, 부부가 부부를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다. 특히 성 상담의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성의 상담이 이성의 상담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sup>27)</sup> 하지만 오해나 유혹의 요소를 제거하고 상담자를 구설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성의 상담이 좋을 것이다. 성 상담에서 동성의 상담이 좋은 이유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동일성을 이해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상담에서 내담자의 성비는 대개 남성과 여성이 3:7정도로 70%이상의 여성들이 상담을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성이 당하는 성 학대 혹은 다양한 성 문제의 경우에 이성 상담자는 돕는 일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성은 남성이 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여성의 존재와 문제 또는 결합과 관련된 것들을 해결하는 데 수월할 수 있다. 게다가 여성 상담자는 상담에서 여성이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순간에 심리적, 육체적인 편안함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3) 교육 방법

사실상 상담기법을 학습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법을 배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평신도상담자는 약간의 훈련을 받음으로써 다른 동료 평신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이다. 사실상 교회의 상담교육을 이수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선발되었거나 되지 않았거나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평신도가 평신도를 상담하는 일은 교육과 관련없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상담을 할 수 있

---

27) Moris B. Paroloff, Irene Elkin Waskow, and Barry E. Wolfe, "Research on Therapist Variables in Relation to Process and Outcome," in Sol Garfield and Allen Bergin, ed.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8), 264.

고, 서로 무지를 나누어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양성화시켜 상담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교회는 상담자 양성 및 교육에 있어서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 신자의 상담자화 정책을 갖고 공식적인 집회를 통한 교육과 지원자에 의한 상담교육 등 이원적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신자들 가운데는 부모로서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자들이 있으며, 또는 구역이나 각종 선교(전도)회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 신자들과 상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교육해야 한다. 이는 정기적일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으나 이미 계획된 다양한 목회 활동이 있으므로 비정기적이라 할지라도 전문상담자가 초빙되어 빈번한 상담교육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이런 공개강좌를 통해서 신자들의 상담적 관심을 자극하고 그 가운데서 소명과 사명을 인식한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공식적 상담자로 활용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는 구역장 등 평신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별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특히 구역장이나 여전도회장 등은 평신도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든 평신도상담자로서의 자격이나 질을 교회가 인준, 보장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 상담센터 등 공식적 상담사역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자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우선적으로 담임목사의 상담적 인식의 확장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평신도 사역 가운데 상담사역이 중요하다는 것, 필수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이상 개교회에서 상담자를 확보하거나 지지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 틀림없다.<sup>28)</sup>

#### 4) 교육 내용

평신도상담자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소정의 집중적인 단기 교육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료 이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이에 꾸준히 참여시키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

28) Collins, "Lay Counseling within the Local Church," : 78-86.

이다. 교육은 결국 질 높은 상담자를 배출해 내는 초석일 수 있는데, 만일 교육이 부족한 상담자의 실수가 있었다면 피해를 입거나 효과적인 상담지원을 받지 못한 내담자는 상담센터, 상담과정, 상담자 전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므로 교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1) 신앙을 통한 인격과 신뢰성 함양: Egan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므로 상담자를 훈련시킬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29)</sup>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신뢰성을 잃으면 누구도 그에게 상담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Helping Skills for Non-professional Counselor* 「비전문상담자를 위한 상담학」을 저술한 Joseph Moore도 상담자의 인격이 상담사 자격증이나 경력 또는 전문성 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sup>30)</sup>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로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다.<sup>31)</sup> 따뜻하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내담자를 감싸주려는 자세를 가지고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상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담교육에 있어서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은 중요한 것이다. 어떤 상담관계에서든지 상담자의 인격, 가치관, 태도 및 신념 등은 기법에 우선하는 1차적인 것이므로 이런 것들은 신앙훈련을 통해서 형성해야 할 것들이다. 즉 성경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치며 훈련시켜야 한다. 아울러서 인간 변화가 상담의 기법이나 기술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 체험토록 하기 위한 신앙교육이 빠져서는 안 된다.

(2) 상담 기법: 상담 기법에 대한 교육은 매우 광범위하여 모든 것을 학습하기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들을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상담의 초기, 진행, 종결기법을 포함하여 경청기법, 질문기법 등을 필수적

---

29) Egan, *The Skilled Helper*, 32.

30) Moore, preface.

31) Moore, 4.

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사례연구와 실습: 교육 내용은 이론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상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또는 삶의 정황 속에서 경험되는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sup>32)</sup> 사실상 다양한 상담은 과거에 흔한 경험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차 더 효과적으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간접경험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과정 등에 관하여 다양한 사례연구가 있어야 하며, 이는 수료 이후에도 정기적인 사례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필수적으로 꾸준히 참여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전문가에 의한 감독상담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4) 상담 윤리: 상담 윤리에 대해서는 매우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는 상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와 비윤리를 미리 인식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상담에서의 비윤리는 의도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충분한 교육이 잘못된 상담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5) 성경 연구: 대개의 평신도상담자는 상담 기법에 있어서 비전문상담자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상담에서는 기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으로써 이는 상담자의 필수적인 요건이다.<sup>33)</sup> Collins에 따르면 평신도상담자는 반드시 성경해석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4)</sup>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고 하신 말씀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32) Collins, *How to be a People Helper*, 63.

33) Jack V. Rozell “Lay Counseling in the Local Church” in Marvin G. Gilbert & Raymond T. Brock ed. *The Holy Spirit and Counseling* (Peabody, MA: Hendrickson, 1985), 109.

34) Gary R. Collins,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np: NAV, 1993), 96.

사실 성경해석학은 신학자나 성경학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는 법을 아는 것은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를 성경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침을 갖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해석학은 부득불 성경 원어(히브리어, 헬라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과목만으로도 수년을 교육해야 옳을 것이지만 상담과 관련된 성경해석에 중점을 둔 성경 연구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과목이다.

대개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상담사역을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상담을 심리치료로만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스스로 전문적인 심리학적 훈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독교상담은 일반상담과 다른 상황으로서 상담이 심리치료만을 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을 분석, 탐색, 권면, 권계, 안위, 지지 등의 활동이므로 일반상담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서 Samuel Southard는 기독교상담은 사람이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 또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가져야 할,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그 메시지에 기초해서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자기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sup>35)</sup>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의 실천자인 목회자나 평신도상담자는 심리학, 심리치료 등을 몰라서 낙심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으로 수립하는데 있어서 심리학의 기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초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대개 기독교상담은 새신자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많은 시간 말씀의 길을 걸어온 평신도들에게 적용된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삶과 사과의 구조, 그에 따른 낙심, 갈등, 회의 등이 상담의 주류를 이룬다. 이런 것은 심리치료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명확한 지침을 얻으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상담이라고 하여 신앙상담만 있는 것도 아니라 건강상담, 법률상담, 약물상담, 성격상담, 재정상담, 교육상담, 고용상담, 진학상담, 가정상담, 진로상담

35) Samuel Southard, *Theology and Therapy: The Wisdom of God in a Context of Friendship* (Dallas: Word, 1989), 167.

등 셀 수 없이 많은 상담이 있을 수 있다. 상담이라는 용어 앞에 붙을 수 있는 서술적 용어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는 상담학을 전공했다고 하여 모든 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목회자가 이 모든 상담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생각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의욕만 앞선 만용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평신도상담자가 해당분야 있어서 전문가일 수 있고 신앙을 가진 자로서 신앙을 가진 자에게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6) 위기 상담: 사실상 모든 상담은 위기 상담이라고 볼 수 있다. 위기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상담을 요청하지 않게 되다가 극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위기 상담은 평신도상담자 교육에서 필수적인 교과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울증, 불안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는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혼, 자살 등의 상담을 특이한 상담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상담자가 위기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효과적인 상담을 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7) 의뢰 상담: 공식적 사역에 투입될 평신도상담자는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담이 예상보다 어렵게 진행될 경우, 다소 전문적인 처방을 요구하는 상담, 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양태의 상담일 경우에 의뢰(referral) 또는 전이(transfer)상담을 해야 하므로 그 요령을 숙지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마치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2차 의료기관이 의뢰를 받아 환자를 처방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평신도상담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해서 내담자가 피해를 입거나, 효과적인 상담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전문상담자에게 의뢰 및 전이해야 하는지의 요령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교회가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상담사(supervisor)를 비롯하여, 각종 상담분야에 대한 자문 또는 각 상담자에 대한 자문(mentor)을 둘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다양한 교과목들이 수립될 수 있겠으며, 그것들을 학습하지 않는 것보다는 학습하는 것이 낫겠으나 예산, 시간, 활용성 등에서 평신도상담의 실제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이론들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진다. Thomas C. Oden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이 이루어 질 때 과도하게 전문화되는 것을 비판한 바도 있다.<sup>36)</sup>

## 5. 평신도상담자의 활용

Tan의 분석에 따르면, 교회 내 평신도상담자의 활용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즉 자발적 비공식적 모본, 조직화된 비공식적 모본, 조직화된 공식적 모본 등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자의 분류도 Tan의 그것을 따르지만 개념은 한국 실정에 맞게 활용도를 고려해 보았다.

### 1) 활용 모델

(1) 자발적 비공식적 모델: 이미 교회에서 자발적, 비공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상담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상담을 배웠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이 사역에 개인적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이다. 일부 상담자는 교회에서 상담과 관련된 아무 조직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상담학을 전공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다. 공식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상담사역을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상담 최일선에 있는 사람이다.

(2) 조직화된 비공식적 모델: 이것은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내에 상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소정의 상담교육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평신도상담자를 선발 및 훈련시키는 체계적인 조직(예산, 교육)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비교적 엄격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감독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담실을 설치하지 않고 다양한 비공식적 상담사역을 유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상담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소그룹(구역 및 선교회 등)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에서 동료들에게 인격적 감화를 주

36) Tan, 83.

어 그들로 하여금 접근토록 하여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조직화된 비공식적 모델로는 이른바 ‘구역상담’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이다. 교회마다 ‘속’ ‘셀’ ‘순’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평신도 소그룹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상 평신도 중심의 목회 구조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초대교회부터 존재해왔던 것을 재발견한 것일 뿐이다. 초대교회의 기초 사역의 단위는 요즘 개념의 구역장이라고 할 수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sup>37)</sup> 구역은 구역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느낌, 생각, 경험, 행동양식을 상호교환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상담은 대부분 일대일 아니면 집단상담일 경우가 많은데 집단상담이 가능한 인원이 구역 편성 인원과 비슷하다. 구역상담은 집단상담과 유사하여 일반화를 경험하게 된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공감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김으로써 더 심각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 또한 모방을 통하여 창조적 삶으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평신도 지도자인 구역장을 포함하여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구역원들의 삶에 많은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상담적 사역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구역이다. 즉 상담을 상담실에 가두어 두지 않고 비공식적 모델을 통해서 이 사역을 활발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조직화된 공식적 모델: 이는 전문상담 인력을 기초로 사역의 현장을 교회 내 공식적인 상담의 장, 이를테면 상담센터 등의 이름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조직화된 공식적 모본은 대체로 대형교회의 모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우선 평신도상담자를 양성해 낼 때 부득불 교육, 훈련이 불가피하므로 이 사역에 투입될 자원을 전문상담자와 비전문

37) William A. Beckham, *Reshaping the Churc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임원주의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제2의 종교개혁」 (서울: NCD, 2001), 153-160.

상담자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전문상담자라 함은 이미 대학원 수준의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이수한 자로 이해할 수 있다. 근래 각 교단의 대학원에 기독교상담학 전공과정<sup>38)</sup>이 개설되어 수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상담학을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고급 자원을 교회가 사장시키는 것은 목회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상담요원으로 하여금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교회 내 상담센터에 평신도들이 많이 찾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바람직한 구조이면서도 일부 대형교회의 모델일 수밖에 없다.<sup>39)</sup> 상당한 예산 등을 투입하여 적극적 사역의 장을 마련한 듯 보이나 더 많은 신자들은 상담센터를 찾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성과 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상적으로 볼 때, 비전문상담자들이 조직적, 공식적 상담사역의 위임, 위탁을 받은 경우에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수득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현상적으로 알 수 있다. 바로 그 노력은 대학원(상담학전공) 또는 상담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성을 갖추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볼 때, 비전문요원은 시간 간격의 문제는 있

38) 교단 대학으로 총신대 상담대학원이 있으며, 천안대 상담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상담심리전공), 한영신대 기독교상담대학원, 국제신대 대학원(기독교상담전공),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산하 대학인 서울신대의 상담대학원,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성결대 신학대학원(기독교상담전공) 및 교육대학원(상담심리전공), 침례신대(상담학전공), 그밖에 호남신대 등에 상담전공을 두고 있으며, 교과융합적인 대학으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상담학전공), 아신대 상담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상담심리전공), 평택대 상담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상담심리전공), 전주대 국제상담대학원, 서울여대 선교대학원(기독교상담전공), 호서대 등에 기독교상담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이 전공에 목회자는 물론 평신도들이 대거 교육을 받고 있다.

39) 서울 논현동의 K감리교회의 경우에는 대형교회로서 많은 평신도 전문인력이 있으므로 상담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를테면 의료상담팀 내에도 외과, 치과, 산부인과... 등이 있고, 병무상담팀, 심리상담팀, 진학상담팀, 결혼 및 가정상담팀 등 다양한 상담팀을 구성하고 각 분야의 상담실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평신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하며,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될 때, 이런 구조는 가장 효과적으로 평신도를 돕는 방법이 될 것이다.

으나 이들은 잠재적 전문요원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적 평신도상담자는 확보되어 있으나 개교회의 예산 또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상설 상담센터를 갖지 못하여 교육이나 재정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sup>40)</sup> 대개 중소형교회에서 이러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중소형 교회에서 전문인력을 상담소에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활동을 제약 또는 범위를 축소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2) 평신도상담자 활용의 유익

전문상담자가 교회 상담센터에서 사역한다면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상담전문가가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실수이다. 상담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에게나 속한 전문적인 활동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상담은 평신도를 성숙시키는 하나의 수단을 제공해 주는 일이어야 한다.<sup>41)</sup> 대개의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전문상담자 등 이 모든 사람들을 합쳐 놓은 것보다 친구에게서 더 많은, 효과적인 충고를 얻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며, 그래서 안 된다는 법도 없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훈련을 받지 못한 친척이나 이웃, 친구나 동료 교인을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지 모른다.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충고 또는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친구, 동료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상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Lawrence J. Crabb은 “성도는 모두 상담자라야 한다.”<sup>42)</sup>고

40) 교회에 상담실을 설치했다 하여 상담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자의 관찰에 따르면, 담임목사가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어 교회 상담실을 설치한 곳을 여러 곳 보았으나 이튿만 상담실이었을 뿐,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음을 보았다.

41) Lawrence J. Crabb, Dan B. Allender, *Encouragement the Key of Caring*, 오현미, 이용복 공역, 「격려를 통한 상담」(서울: 나침반, 1996), 164.

42) Lawrence J. Crabb, *The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성숙 역, 「성경적 상담학」(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6), 188.

주장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비전문가를 훈련시키고 이들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전문상담자의 존재에 대해서 전문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 동료 상담자는 내담자와 친구이거나 동료로서 그의 가정이나 직업, 생활방식, 신앙, 대인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성이나 기질, 체력, 약점, 능력 심지어 실패의 경험까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 전문가들보다 더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대개 상담의 주제는 판단분열적인 문제, 갈등, 위기 등으로 고민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 친구, 동료의 조언에 신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삶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신앙생활에 대한 갈등을 느끼게 될 때, 이를 담임목회자와 상의하는 사람들보다는 동료 신자, 즉 구역장, 자신을 교회로 인도한 신자,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이나 전도사에게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며 바쁜 담임목회자의 시간을 뺏는 부담을 덜뿐만 아니라, 담임목회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심리적 부담을 갖거나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늘 바른 신앙, 신앙의 성장, 기도, 말씀, 사랑 등을 강단에서 외치는 담임목회자의 생각과는 다른 여러 가지 증상 또는 현상, 문제, 고민들로 인해서 괴로워함으로써 이미 명확한 윤리적, 신앙적,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부터 믿음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가 두려운 것이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를 기도의 빈곤으로 돌리게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에 책임을 돌리게 될 때, 성경도 읽지 않는 사람 등으로 오해받기가 두렵기 때문에 담임목회자를 찾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종합, 정리해 본다면 평신도상담자를 양성한다는 유익은 첫째, 평신도들은 목회자나 교회의 전문상담자와 달리 내담자 또는 잠재적 내담자라고 할 수 있는 동료 신자들과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더 가깝게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둘째, 평신도들은 목회자에 비해서 상담을 위해 시간을 내기가 용이하여 내담자를 꾸준히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라도 만나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sup>43)</sup> 평신도

들은 바쁜 목회자와 극도의 짧은 상담보다는 평신도 동료들과 다소 긴 시간동안 상담하기를 원한다. 전문상담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근무시간과 상담계획의 제약 때문에 만나기가 힘든 반면, 평신도상담자는 부담없이 전화로 즉시 통화하여 장시간 상담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목회자는 평신도를 대상으로 대개 단회적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단기상담(short term counseling)도 해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평신도는 동료인 내담자의 가정이나 작업 상황, 생활 방식, 신앙, 대인관계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유도하는데 있어서나 생활 환경을 바꾸도록 내담자를 돕는 일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며,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다. 넷째, 평신도는 전문상담자보다도 더 편안하고 형식적이지 않은 상태 및 자세로 숨김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흔히 전문상담자는 어떤 차원높은 상담이론에 따라 대화를 추진하려는 경향에 의해서 삶과 괴리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평신도상담은 삶의 현장에서 유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목회자가 평신도의 어떤 문제를 돕는데 있어서는 최적의 조력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는 없다. 평신도들은 교회 내의 다양한 모임에서 동료 평신도에 의해서 적시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sup>44)</sup> 다섯째, 전문상담자를 방문할 경우에 친구나 동료 상담자를 만날 때와 달리 낙인(stigma)이 따를 수도 있어 심리적 부담이 커진다. “내가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를 찾아간다면 나는 정신이상이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일 것이 틀

43) Martin & Deidre Bobgan, *How to from Scripture* (Chicago: Moody, 1985), 제8장 상담자와 변화. Bobgan의 분석에 따르면 “전문상담자는 내담자를 50분 이상 상담하거나, 1주일에 1회 이상 만나거나 관심을 갖는 경우는 그리 흔한 경우가 아니다. 언젠가 한 여성 내담자가 여성 상담자에게 함께 점심을 먹자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상담자는 부드럽고 분명하게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상담자이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거부한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평신도상담자는 이런 면에서는 자유로우며 개인관계가 형성된다면 문제를 더 깊이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다.

44) Howard W. Stone, *Brief Pastoral Counseling: Short term Approached and Strategies*, 정희성 역, 「해결중심 목회상담」(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205.

림없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여섯째, 경우에 따라서는 내담자와 하위문화가 동질적일 때, 그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Korchin에 따르면 비전문상담자를 양성하는 것은 전문상담자를 양성하는 제1단계라고 보았다.<sup>45)</sup> 대개의 비전문상담자들은 상담에 관심을 표명하고, 기본적인 훈련을 받다가 결국 상담학을 전공하여 전문상담자로 전향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비전문상담자는 잠재적 전문상담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Ⅲ. 맺는 글

평신도상담은 목회자 스스로가 신자들에게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이것은 목회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을 경우에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비전문상담자를 활용하는 데는 아직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효과나 활용에 있어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약간의 훈련을 받음으로써 동료들이 겪고 있는 영적, 신앙적, 심리적 또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모든 평신도들은 서로 상담자가 되어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평신도상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경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동료가 당한 문제를 동료로서 도와주는 입장이므로 그는 고도의 교육을 받은 전문상담자보다 부담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살펴 보았다.

성경은 평신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권면하며 소심한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며,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가르치고 있다(살전 5:11-14).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바와 같이 각각 자기의 일만 돌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45) Sheldon J. Korchin, *Modern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Basic, 1976), 519-21.

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빌 2:4).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그들을 붙들어 주는 심정으로) 함께 울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롬 12:15).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 줄 수 있는 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자가 동료 평신도들이다. 그러므로 평신도상담자의 양성과 그에 걸맞는 교육은 작금의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요,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문제라고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견해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 ※ 참고 문헌

- Albee, George. Letter to editor, *APA Monitor* 8, no. 2 (February 1977).
- Beckham, William A. *Reshaping the Churc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임원주 외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제2의 종교개혁」. 서울: NCD. 2001.
- Bobgan, Martin & Deidre. *How to from Scripture*. Chicago: Moody 1985.
- Chu, Franklin and Trotter, Sharland. *The Madness Establishment*. New York: Grossman. 1974.
- Collins, Gary R. *How to be a People Helper*. Santa Ana, CA: Vision House. 1976.
- \_\_\_\_\_. "Lay Counseling within the Local Church." *Leadership* 1 (1980).
- Crabb, Lawrence.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전요섭 역. 「성경적 상담학 개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5.
- \_\_\_\_\_, Allender, Dan B. *Encouragement the Key of Caring*. 오현미, 이용복 공역. 「격려를 통한 상담」. 서울: 나침반. 1996.
- \_\_\_\_\_. *The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성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6.
- Egan, Gerald. *The Skilled Helper*. 제석봉, 유계식, 박은영 공역. 「유능한 상담자」. 서울: 학지사. 1997.
- Frank, Jerome. "Mental Health in a Fragmented Society: The Shattered Crystal Ball."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9, no. 3 (July 1979).
- Hamilton, James D. *The Ministry of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72.
- Jones Enrico E. and Zoppel, Christina L. "Impact of Client and

- Therapist Gender on Psychotherapy Process and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no. 2 (1982).
- Moore, Joseph. *Helping Skills for Non-professional Counselor*. 전요섭 역. 「비전문상담자를 위한 상담학」.서울: 은혜출판사. 1995.
  - Morris, Paul. *Love Therapy*. Wheaton: Tyndale House. 1974.
  - Korchin, Sheldon J. *Modern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Basic. 1976.
  - Matarazzo, Joseph. “Comment on Licensing.” *APA Monitor* 10 (September-October 1979).
  - Nicholi, Armand. Jr. “The Fractured Family: Following it into the Future.” *Christian Today* (May 25, 1979).
  - Paroloff, Moris B., Waskow, Lrene E. and Wolfe, Barry E. “Research on Therapist Variables in Relation to Process and Outcome.” in Garfield, Sol and Bergin, Alledmed.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8.
  - Rozell, Jack V. “Lay Counseling in the Local Church.” in Gilbert Marvin G. & Brock, Raymond T. ed. *The Holy Spirit and Counseling*. Peabody, MA: Hendrickson. 1985.
  - Southard, Samuel. *Theology and Therapy: The Wisdom of God in a Context of Friendship*. Dallas: Word. 1989.
  - Stevens, Paul. *Liberating the Laity*. Downer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5.
  - Tan, Siang-Yang. *Lay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91.
  - Torrey, Fuller. *The Death of Psychiatry*. Radnor, PA: Chilton. 1974.
  - Wood, Garth. *The Myth of Neurosis*. New York: Harper & Row. 1986.

Abstract

## Training for Lay Counselor in Korean Christian Counseling

This research is to clarify using and training of a lay counselor in Korean church. Pastoral counseling is not only a pastor's original possession and duty, but also a obligation for all of the laity.

Today, many counselors are doing their counseling ministry in a church and their life situation publically, non-publically, or systematically, non-systematically. Most of all church is consisted of 99% laymen. Actually these lay people are the object of counseling and potential counselee. If a pastor does ministry to about 100 church members in a church, if a church member has at least two or three problems in their life and faith situation, a pastor has to involve with problems more than 200-300 at a minimum. Like this, a pastor can not solve all these problems actually.

In this research, the researcher dealt with training of a lay counselor who solve for his/her peer's problems instead of a pastor. The researcher classified official and unofficial counselor as non-professional counselor. The official counselor meant to do counseling ministry through counseling center in a church. Also, the other meant that unofficial counselor as a peer counselor is to counsel in their

life situation to the friends, other laymen, and their family members.

The researcher dealt with layman counselor's qualification, important matter, education method, lay counselor's education, education substance, and the limitation and dangerousness as nonprofessional counselor. Also, the researcher suggested curriculum for lay counselor training. The curriculum must consist personality through faith, case study, practice, moral principle, Bible study, crisis counseling, and referral counseling methods, including lay counselor's practical use and model. A lay counselor had potential ability for counseling. So, a lay counselor is going to give a lot of benefit to the church. Accordingly, a church and a pastor should not ignore lay counselors, should develop their talent. This is a real model for modern church or biblical ministry.

**\* Key words**

Pastoral Counseling, Christian Counseling, Laity, Counseling, Lay Counseling,